청사부지 공원 조성 여론속 이미 고층 개발용지로 변경

남구, 눈가림 공청회 주민 우롱

"아파트 과잉 밀집 도시환경·외관 망쳐" 비난

광주시 남구가 현 청사부지를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토지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남구는 현 부지의 용도를 놓고 지난달 공청회까지 개최했으나, 이미 2개월 전에 매각을 염두에 두고 매매가를 높이기 위해 토지용도를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는 형식적인 행정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토지가치를 과도하게 높여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남구 등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회의를 갖고 남구 봉선동 511번지 현 남구청사 부지인 2만2000㎡의 용도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 7월15일 용도변경이 최종 결정됐다. 도시계획위는 이와 함께 현 부지 인근 토지 1만3400㎡의 용도 역시 기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줘 결과적으로 3만5400㎡의 토지 가치가 급상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일대의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에 비해 50%에서 배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20% 이하, 준주거지역은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은 기존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층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 대단위 문화 및 상업시설 등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광주시 도시계획위는 제2종 주거지역의 바로 위 단계인 제3종 주거지역(용적률 250% 이하)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나 토지 가치를 높여주면서 남구의 요청에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남구의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도 허울뿐인 요식행위였다. 남구는 지난달 20일 '현 청사부지 활용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체매각 ▲보건소 부지 제외 매각 ▲공원 조성 등의 방안을 놓고 논의한 뒤 주민 3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7.8%가 전체 매각에 찬성했다며 매각을 공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용도변경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구는 내부적으로 이미 부지 전체 및 그 주변까지 매각하기로 결정한 뒤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셈이다.

또 현 부지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 유력 건설업체들이 눈독을 들인 상태에서 토지가치를 높이면서 남구가 챙길 수 있는 매각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남구 관계자는 "매각 때 토지가격을 높이기 위해 용도를 변경한 것이 맞다라며 "공청회에서 주민의견이 공원조성으로 모아졌다면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전체 매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전체 면적의 비율. 건폐율과 함께 대지에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100평 대지에 용적률이 200%인 경우 전체 면적이 200평인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너 브라 입었냐"

기간제 교사가 초등생 성추행

법원 "합의했다" 집유 선고

"너 브라(브래지어) 입었냐?"

지난 2011년 9월1일자로 광주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서모(64)씨가 둘쨋날 출근해 한 여학생(12)에게 던진 말이다. 서씨는 이어 학생의 가슴을 만진 뒤 1시간 동안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3차례나 성추행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은 최근 초등학생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국감에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교사가 나이 어린 제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할 의도는 미미하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다시 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맡은 학급의 학생이라는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직업·연령·가족관계 및 이 사건 성추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화엄사 각황전 방화 용의자 승려 검거

광주 대원암 탱화 불 지른 후 범행

구례경찰은 14일 국보 제67호인 화엄사 각황전에 불을 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로 승려 이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30분께 각황전 뒤쪽 문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스님이 재빨리 불을 꺼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운림동 대원암 탱화에 불을 지른 뒤 곧바로 화엄사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당시 화엄사를 드나든 차량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 추적 끝에 이날 오후 3시께 경남 산청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승적 보유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보길도 상록수림 불

14일 오후 2시30분께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해변 인근 폐양식자재에서 불이 나 인근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40호)까지 번졌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과 경찰, 산림청 헬기 등이 출동해 밤 늦게까지 진화작업을 벌여 불이 상록수림과 도로를 넘어 확산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물이 잘 먹지 않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진 폐양식자재에서 불이 났고 바람이 거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잔불 제거 작업을 벌이고 주택 등 산림 피해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처음 난 폐양식자재는 지난 태풍으로 인해 해안가로 밀려왔던 전복양식 자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이주여성 김치 미소 1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에서 열린 '제19회 광주세계김치 문화축제'에서 다문화가정 주부 등 참가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들어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취직 미끼 수천만원 꿀꺽

前 지역 일간지 간부 검거

취업을 미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지역 일간지 편집국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은 14일 "모 구청 출입기자이자 편집부국장 신분을 내세워 해당 구청 계약직 직원 및 기아자동차 생산직 사원으로 취직을 시켜준다고 속여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최모(6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A(여·61)씨에게 구청 출입기자 신분을 과시하면서 고씨의 아들을 취업시켜준다고 속여 3000여만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모두 9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가짜 출입증으로 들어가 정부중앙청사 방화 투신

휴일 정부중앙청사에 60대 남성이 가짜 출입증을 갖고 들어가 사무실에 방화한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8층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에서 김모(61)씨가 불을 지르고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불은 사무실의 책상 위 서류, 의자 등을 태우고 교과부 직원에 의해 6분만에 진화됐다. 김씨는 청사 출입증과 유사한 형태의 신분증을 청사관리 직원에게 보여주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 청사의 출입자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완도군청 女직원 전산 조작 5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공직자 도덕성 해이 심각

완도군청 기능직 공무원이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여수시에 이어 공금 관리를 맡은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는 등 공직자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전남지역 일부 시군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완도군 기능직 공무원 최모(여·37)씨가 전산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금 5억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사업계약 보증금, 직원 소득세 등을 관리해왔으며, 계장·과장 등 상급자들은 2년여 간 최씨의 횡령 행위를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횡령한 공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지난 11일에는 여수시청 기능직 공무원 김모(47)씨가 수십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3년2개월 동안 여수시 회계과에서 시청 전 직원 급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관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일부를 자신의 비밀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도경찰서 간부와 장성경찰서 직원 역시 억대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청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ejchung@

탈의실서 친구 나체 사진 찍어 전송

쌍나팔

○…사우나 탈의실에서 절친한 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어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엉뚱한 여고생이 경찰서행.

○…1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성폭력(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16)양은 지난달 20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친구(여·16)의 나체 사진을 찍어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는 것.

○…A양은 경찰에서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했다"며 "이번 일로 친한 친구와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태연하게 진술.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2타경 3456	1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41, 나동 4층 502호 68.88㎡	아파트	34,000,000 34,000,000	임차인있음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2타경 3937	1	해남군 화산면 안호리 372-1 726㎡	대	43,462,120	일괄매각.제시외
		동소372-1 78.93㎡ 제시외 창고등 254.4㎡	단독주택	43,462,120	건물포함
2012타경 4091	1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699-3 411㎡	대	6,967,690	일괄매각.제시외
		동소 699-3 39.67㎡ 제시외 창고등 36㎡	단독주택	6,967,690	건물포함.주택폐가[장기간방치]
[대지/임야/전답]					
2012타경 1771	2	완도군 신지면 신상리 763-1 617㎡[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9,210,600 9,210,600	일괄매각.목록7분묘소재함.2012타경2460[병합]
		동소 763-7 145㎡	전		
		동소 763-8 617㎡[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2012타경 2736	1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626-16 1652㎡[일부유지]	임야	49,400,000 49,400,000	일괄매각.목록1,2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전],일단지의토지로사용
		동소 626-17 1642㎡	임야		
2012타경 3692	1	완도군 청산면 지리 976 298㎡	답	1,877,400 1,877,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3777	1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산14-1 617㎡[공유자천성욱지분4분의1전부]	임야	555,120 555,120	분묘소재여부불분명
	2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712 1266㎡[공유자천성욱지분4분의1전부]	전	4,747,500 4,747,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4015	1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699 1309㎡[공유자강남배지분2분의1전부][분묘소재함]	전	12,353,250 12,353,250	목록1,2번농지취득자격증명요[휴경농]
		동소 700-2 932㎡[공유자강남배지분2분의1전부]	전		
2012타경 4015	2	동소 702-1 1472㎡[공유자강남배지분2분의1전부][구거소재및포락[유실]여지있음]	전	8,243,200 8,243,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휴경농]
2012타경 4251	1	완도군 청산면 청계리 551 383㎡[타인소유건물소재재실부지및일부전으로이용]	대	1,608,600 1,608,600	
2012타경 4497	1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361 1140㎡[공유자이재석지분4분의1전부]	전	7,695,000 7,69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385-5 1569㎡[공유자이재석지분4분의1전부][인접지상의건물일부가소재]	전	10,983,000 10,98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일부도로및대지로이용
[기타]					
2012타경 1771 2012타경 2460 [병합]	1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1136-21 268㎡ 제시외 기계실 74.5㎡	임야	145,674,000 145,674,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6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의한기계기구목록:별지기재와같음
		동소 1138 1459㎡	잡종지		
		동소 1136-67 46㎡ 제시외 축양장 등 1475㎡ 기계기구 발전기 150kw 1㎡	대		
		동소 1137-1 2㎡	잡종지		
		동소 1137-2 50㎡	잡종지		
		동소 1139-5 110㎡	전		
2012타경 4572	1	선적항:완도군노화읍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선들호 선질:에프알피 총톤수:4.99 기관의종류와수:가솔린선외기기관225.000마력2대 진수년월일:2007년7월16일	선박	81,030,000 81,030,000	정박지또는보관장소:완도군노화읍북고리선착장
2012타경 4596	1	선적항:완도군보길면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한일호 선질:에프알피 총톤수:0.80 기관의종류와수:가솔린선외기기관60.000마력1대 진수년월일:2008년2월28일	선박	13,000,000 13,000,000	보관장소:완도보길부황리선착장
	2	선적항:완도군보길면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남강호 선질:에프알피 총톤수:3.45톤 기관의종류와수:가솔린선외기기관130.000마력1대 진수년월일:2003년12월9일	선박	39,000,000 39,000,000	보관장소:완도보길부황리선착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2. 10. 29.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2. 11. 5.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권혁민